

01 교회소식

나를 위한 그 사랑 ...

해외에서 참석한 목회자와 성도들조차 극찬한 2018 부활절 공연, 총 300여 명이 참여한 뮤지컬 '주님의 십자가' 관련 소식.

02 생명의 말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 (1)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에 대해 살펴본다.

03 간증

주를 향한 소망으로 빛을 발하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만민의 청년, 서지에 자매와 태국 이성걸, 페루 아르놀 형제의 간증.

04 화보

사진으로 보는 '주님의 십자가'

부활절 공연 '주님의 십자가' 화보를 통해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 고난, 부활, 승천의 역사적인 사건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본다.

만민뉴스

제833호 2018년 4월 8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감동으로 새겨지다!

2018 부활절 공연, 뮤지컬 '주님의 십자가'



지난 3월 31일 금요일야예배 2부 시 2018 부활절 공연, 뮤지컬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교회 예능위원회 주관으로 분당 특설무대에서 펼쳐졌다.

러시아, 벨로루시, 케냐, 프랑스, 미국,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GCN방송(www.gcntv.org)과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 된 이날 공연은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 고난, 부활, 승천의 현장에 있는 듯한 생생한 감동을 안겨 주었다.

천상의소리선교단, 천상의무용팀, 빛의소리중창단, 크리스탈싱어즈, 글로리워십팀, 권능팀, 하모니팀 등 예능위원

회 소속 팀들과 성도들이 배우로 출연하여 혼신의 연기를 보여주었으며, 찬양과 연주는 연합찬양팀과 연합반주팀, 닥시 오케스트라&임마누엘성가대가 담당하였다. 이 밖에도 안무, 무대설치, 의상디자인, 소품, 분장 등 스태프로 참여한 성도들을 비롯하여 공연전문 외부 스태프 등 총 300여 명이 함께하였다.

1막 '주님의 십자가'에서는 어린 예수님이 십자가 구원의 섭리를 이룰 때를 기다리며 기도로 준비하시는 장면을 시작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사랑, 기도, 사역, 최후의 만찬, 십자가의 길을 표현했다.

2막 '주님의 부활'에서는 가롯 유다의 최후, 예수님 운명 후의 사랑하는 이들, 주님의 부활과 승천, 끝으로 전 출연진과 성도들이 함께 올려드리는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막을 내렸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각종 공연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찬양으로 구성, 기획되어 성도들에게 깊은 감동을 더해 주고 있다. 이번에도 만민찬양 '아무도 알 수 없었다네', '제자들', '십자가', '그 후-가롯 유다', '부활하셨네', '그 후-제자들' 총 6곡을 새롭게 선보였으며, 성도들은 가사와 선율 하나하나에 담긴 주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며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기쁨, 그리고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하였다.

한편 4월 1일, 부활주일 대예배 시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주님의 부활'(고전 15:41~44)이라는 설교를 통해 "주님의 부활이 주는 깨우침은 첫째, 영원한 삶이 있고 둘째, 주 안에서 수고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르며 셋째, 주 안에서 고난은 고스란히 영광이 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저녁예배 시에는 성찬식이 거행되어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Interview •

"성도들이 만든 프로페셔널한 공연 정말 대단합니다!"

바실리 마스칼렌카 목사
(벨로루시 민스크 은혜교회 담임)

모든 음악과 연기, 무용 등을 한 교회에서 준비했다니 참으로 믿기지 않는 대단한 일입니다.



이렇게 프로페셔널하고 감동적인 부활절 공연은 처음이며, 세상의 어떤 뮤지컬보다 수준이 더 높았습니다. 특히,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연기는 압권이었으며 가롯 유다와 막달라 마리아의 연기도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만민중앙교회는 기도가 뜨겁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 행복이 넘쳤으며,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너무 겸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인품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매우 특별했던 당회장님과의 만남을 저는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왼쪽 작은 사진).



당회장 이재록 목사

“저희가 믿음으로 ...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다 ...”
(히브리서 11:33~38)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 (1)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은 후에야 비로소 담대함을 얻고 이전보다 감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 버리라, 지키라’ 말씀하신 계명들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며, 그 사랑이 온전해지는 만큼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히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요일 5:3, 3:21~22).

2.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

1) 불의 응답을 끌어내린 엘리야

북이스라엘의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인을 상대로 대결해 불의 응답을 끌어내렸습니다(왕상 18장).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참 신은 하나님뿐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바탕 위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임하니 혈혈단신으로 담대히 의를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믿음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2)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던 엘리사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의 밝은 영감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치는 작전 이 때번 실패하자 적대국 아람은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많은 말과 병거, 군사들을 보내 그가 있는 성을 에워싸니 이를 본 엘리사의 사환은 두려워 떨지요.

하지만 엘리사는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환의 영안을 열어 주시니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게 엘리사를 두른 것을 보지요.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였고, 아람군은 다시는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합니다(왕하 6장).

진정 믿음 있는 사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사방으로 우겨쌈

을 당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담대히 구할 수 있고,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려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자신의 민족을 구한 에스더

에스더 3장 이하를 보면 왕의 총애를 받던 하만이 유다 민족 전체를 없애려고 음모를 꾸미자, 모르드개는 유대인 왕후 에스더에게 아하수어로 왕에게 알려 민족을 구하라고 간청합니다.

이에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 3일 금식을 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국 하만의 계략을 폭로하여 자신의 민족을 구했을 뿐 아니라 더욱 왕의 사랑을 입게 됩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니 이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여찌 협력하신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화가 복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도록 크게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 죽음 앞에도 타협지 않았던 다니엘

바벨론 제국의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다니엘로 하여금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자, 이를 시기한 사람들이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계략을 꾸밉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진실하고 온전했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자 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사자의 입을 봉하시니 조금도 다치지 않도록 지킴을 받았습니니다(단 6장). 죽음의 위협 앞에서 타협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의를 굳게 지켜 영광이 크게 드러난 것입니다.

5) 변함없이 믿음을 지킨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3장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공포합니다. 이에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 없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국 왕 앞에 끌려 나갔고, 왕은 이제라도 절을 하면 살려 주겠다고 기회를 다시 주지만 그들은 조금도 타협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이처럼 담대할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평소보다 일곱 배나 더 뜨겁게 달군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니 머리털 하나도 그슬리지 않고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왕에게도 더욱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6) 믿음의 용사 기드온과 소년 다윗, 유다 왕 여호사밧

사사기 7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은 미디안 군사로 인해 전세가 매우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병력을 줄였음에도 담대히 나가 지시하신 대로 행하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행하니 그가 던진 물뭇돌이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의 이마 중심부에 박혀 단번에 쓰러졌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 역시 주변 나라들이 연합해 남유다를 치러 오자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 거룩한 예복을 입은 성가대를 앞세워 감사의 찬양을 올리게 하였습니다. 이런 믿음의 행함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안겨 주셨습니다(대하 20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떤 두려움도 내어놓는 온전한 사랑으로 담대히 행하십시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담대히 의를 행하였습니다.

이번 호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두려움을 내어쫓는 온전한 사랑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탄압과 핍박 받으면서도,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고 칼에 목 베임을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한 대로 온전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용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순전하고 정직하여 의인이라 인정받았지만 그 깊은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욥 3:25). 연단을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아침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아침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아침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아침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아침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의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주를 향한 우리의 소망

“세계를 이루는 만민 사역에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납니다”



이성결 형제
(20세, 태국 치앙라이만민교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선교사로 파송된 부모님을 따라 태국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저희 가족을 품고 기도해 주심을 알기에 기쁨으로 적응해 갈 수 있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순수한 태국 영혼들이 성결의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변화되는 것을 보았고, 아버지 이재원 목사님이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손수건(행 19:11~12)으로 집회를 인도하실 때 각종 질병을 치료받아 간증하는 모습을 보며 믿음이 되었지요.

저희 삼형제도 사역을 돕는 일꾼이 되어 큰 형(승훈)은 예배팀 기타연주와 성가대 팀장으로 봉사하다가 현재는 군복무 중이며, 작은 형(성현)은 예배 팀장과 키보드 반주, 인도차이나 세미나 시 영어 통역과 남청년선교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청년연합회 회장인 저는 본교회와 영적 흐름을 태국 청년들과 함께 타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요즘은 '2018 새 예루살렘

가기 운동'이 진행되어 청년들이 더욱 뜨겁게 천국 소망으로 달려가고 있지요. 학교에 가기 전 아침 기도회를 참석하여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저녁에는 다니엘철야를 통해 기도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화요찬양예배 인도자와 전도 목적으로 열린 한국어 강좌 강사로, 인도차이나 반도 목회자 세미나 시 태국어와 영어 통역으로 봉사하며, 주일예배와 금요철야예배 시에는 당회장의 설교를 태국어로 동시통역하는 사명도 맡고 있습니다. 당회장의 설교를 성도님들이 너무 사모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받는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너무 뿌듯하며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음에 감사하게 되지요.

마지막 때 전 세계 만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당회장의 사역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고 힘이 솟아 납니다. 젊음의 때에 주를 위해 가치 있게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꿈을 향해 더 가까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서지애 자매
(29세, 4청년선교회)

2006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뒤늦게 외고 입시를 준비하느라 주말에도 학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주일 성수가 하나님의 영적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축복의 길임을 배웠기에 어찌하던 주일을 지켰더니 과천외고의 경쟁률이 가장 높은 영어과에 합격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둔 2014년 말에는 당회장님 기도를 받고 필기 시험과 면접을 잘 치러 목표하던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입사할 수 있었지요. 입사 초기, 윗분이 배석한 술자리에서 추천으로 뽑힌 사람이 윗분이 주신 술을 받아 마시면 선물을 주는 이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제가 추천되어 잔을 받게 되었지만 양해를 구한 뒤 술은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지요. 윗분께는 죄송했지만 그 술을 마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제게는 더 슬프고 후회할 일이 될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많은

분이 저를 좋게 봐 주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저는 의와 틀이 강하고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했기에 상사와의 소통이 서툴러 크고 작은 갈등들을 겪었습니다. 그런 제게 당회장의 저서, 성경인물 시리즈는 멘토가 되어 주었습니다. 특히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은 윗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고를 열어 주었고, 질서상 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사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갈등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안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이에 작년 연말에는 팀장님의 추천으로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받게 되었지요. 저는 대학에서 중국어와 영어를 전공하였는데 영육 간에 준비된 그릇이 되어 주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현재 대학원 공부와 업무를 병행하며 시간을 쪼개서 일본어도 추가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제게 꿈을 주시고, 이를 수 있는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게임에 빠져 살던 제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르놀 자카리아스 몰리나 벨라스코 형제
(26세, 페루만민교회)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가르침에 따라 성경을 읽고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학교 성적도 우수하고 나름대로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열한 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공부도 소홀히 하고, 대신 비디오 게임에 몰두하며 많은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였지요. 무엇보다 6년 동안이나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다.

그러던 2008년 11월, 친척분의 전도로 페루만민교회에 다니면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와 영적인 권세로 인해 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디오 게임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주어졌고, 12월 25일에는 완전히 해방되어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뒤 저는 스페인어로 된 교회 홈페이지에서 당회장의 설교 텍스트를 읽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당회장의 저서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을 읽으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인

간 경작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고, 주님의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 즉 삶의 목적도 깨닫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다니엘철야에 참석하면서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당회장의 설교를 무장하며 MIS(만민국제신학교) 과정도 수강하였지요. 이후 담임목사를 도와 5년간 페루의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성결의 복음과 하나님 권능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페루로 파송되어 오신 담임 김항열 전도사님의 스페인어 설교 준비를 도와드리고, 청년선교회 회장으로서 충성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페루와 주변 나라에 성결의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이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전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제 소망이지요. 참된 행복을 주신 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제1막 주님의 십자가

- 1장. 인트로/ 십자가 섭리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로 준비하시는 어린 예수님
- 2장. 서곡/ 닛시오펙스트라 연주
- 3장.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 4장. 주님의 사랑/ 주님과 함께한 사역에
행복해하는 제자들
- 5장. 주님의 기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홀로
기도하시는 예수님
- 6장. 주님의 사역/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기뻐하는 백성들
- 7장. 최후의 만찬
- 8장. 십자가의 길



2018 부활절 공연
주님의 십자가

만세 전에 감추었던 비밀, 주님의 십자가. 그 구원의 섭리를 온전히 이루기까지의 사랑을 통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이 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제2막 주님의 부활

- 9장. 가롯 유다의 최후
- 10장. 그 후,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
동정녀 마리아와 함께 주님을
더욱 그리워하는 막달라 마리아
- 11장. 주님의 부활
- 12장. 피날레 승천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62)513-2455, 010-8888-072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055)322-7055, 010-6605-2254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새광주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창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백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주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53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성대천로 1177번길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성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421-0889, 010-8927-207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